

가든디자이너와 떠나는 세계 30곳 정원 인문기행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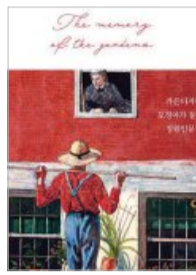
정원의 기억

오경아 지음

“영국을 대표하는 두 가지를 들라면, 셰익스피어와 영국식 풍경 정원이다.” 영국의 방송인이자 유명 월예인인 문티 돈의 말이다. 일반적으로 셰익스피어의 명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영국을 대표한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영국식 풍경 정원은 영국의 자부심이라는 데는 의아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영국식 정원 '러유샴'을 디자인한 윌리엄 켄트의 업적과 천재성을 알고 나면 절로 수긍이 된다. 사실 영국식 정원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프랑스 루이 14세 때 완성된 베르사유 정원의 명성이 대단했다. 인접 국가들이 그것을 본뜨거나 따르는 게 일반적이었다. '아 라 프랑세즈 가든 스타일'이 생겨난 것도 그런 연유다.

그러나 젊은 시절 이탈리아에서 건축과 미술 공부를 했던 윌리엄 켄트는 당시 풍경화에 흥미를 가졌다. 당시 신화와 종교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유럽의 미술과 달리 '자연주의 풍경'에 매료됐



다. 이 풍경화는 상상으로 형성된 것이었는데 후일 '픽처레스크 정원', '그림과 같은 정원'이라고 불렸다.

영국으로 온 켄트는 자신만의 정원을 디자인했다. 스토우 정원은 “정원관광이라는 문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곳이며 옥스퍼드셔의 개인 정원 리우삼 공원은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고 전체 풍경 정원을 통틀어 완성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작가이자 가든디자이너이며 방송작가로 활동하는 오경아의 책 '정원의 기억'에는 세계의 정원 30곳이 소개돼 있다. 스페인 마조벨 정원을 비롯해 프랑스 지베르니 정원, 우리나라의 창덕궁 후원, 안동 병산서원, 교토의 료안지 정원, 맨해튼 센트럴 파크 등이 등장한다.

저자는 영국 리틀컬리지와 예식스대학교에서 가든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귀국 후에는 가든디자이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디자인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으로는 스타필드 위례, 부천, 부산 명지 등의 상업공간과 '한글정원' 등의 전시작품을 디자인했다. 아름다움의 연출을 위해 다양한 분야 예술가들과 협업을 해오고 있다.

저자는 정원 공부를 하던 초창기에는 정원이 예쁜지,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머릿속에 느낌표로 저장된 정원들은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 안에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이 좀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남아 있는 곳들”이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저자는 정원에 관한 10여 권의 다양한 책을 저술했고 해외 서적을 번역 소개하기도 했다. 일련의 모 든 과정에 '정원은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철학과 생활이 녹아 있는 주거 환경'이라는 가치를 심는데 주력했다.

책에는 예술, 역사, 아이디어, 명상 등의 키워드로 바라본 정원의 풍경이 소개돼 있다.

예술과 관련해서는 세상에 없던 에클 세계를 열어간 가우디와 그가 구상한 구엘 파크를 비롯해 영국식 플라워 정원의 정수가 인상적인 시싱허스트 정원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히스토리학과 접목된 정원은 우리나라의 유서 깊은 공간들이 나온다. 특히 창덕궁 후원은 정원 사랑을 보여준 왕조의 조선 600년 왕실의 역사를 대변한다.

저자는 창덕궁 후원의 정원 연출은 형태적으로는 전형적인 물의 정원이라고 설명한다. “산에서 흘러 내린 물이 후원 전체를 막힘없이 잘 흐르게 했고, 낮은 곳에 이르러면 대형 연못과 그 옆에 건축적으로 빼어난 정자를 만들어 물과 함께 주위를 감상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상향을 상징한 정원은 안동의 병산서원과 보길도의 부용동 정원을 빼놓을 수 없다. 전자가 풍수지리에 입각한 완벽한 차경의 기법을 보여주는 곳이라면 후자는 파란만장한 정치인의 삶을 버리고 정원에 안긴 한 인물의 삶을 보여준다.

더불어담양 소쇄원은 세상을 등졌지만 열여섯살 어린 양산보의 기억을 환기한다. 저자는 “자연과 소통하려했던 특별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공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형적인 물의 정원인 창덕궁 후원.

<공리 제공>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기도

함세웅 지음

로마 가톨릭 사제, 사회운동가, 교육자, 작가 등 다양한 직함을 가진 이가 있다. 바로 함세웅 신부다. 최근 함세웅 신부가 발간한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기도'에 소개돼 있는 신부의 이력이다. 이 외에도 “청년 학생들에게 정의란 깃발을 함께 든, 국가폭력 희생자들에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통곡한, 사회적 약자 에겐 고난의 현장을 함께 버텨주는 동지이다”고 점언돼 있다.

지금까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 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고 민주화운동으로 돌아가시거나 고통받는 분들을 기리고 복원하는 일에 앞장섰다.

“해방에서 촛불까지, 기억하고 기리고 소망하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책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기도'는 평생 사제의 길과 투사의 길을 걸어 온 신부의 관점에서 쓰여졌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역사의 씨실과 날실을 직조했다.

우연한 기회에 붓글씨를 배우게 됐다 그는 “우연이란 인간의 한계에 기이한 고백일 뿐 신의 섭리 안에서 무엇이든 필연”이라고 말한다. 함 신부는 어느 수녀가 한 말, 즉 “신부님 글씨에서 울분짓음이 느껴져요. 신부님께서 성경 말씀보다는 시대의 이야기를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한 말에서 영감을 얻었다.

저자는 책이란 무대 위에 우리 공동체가 겪은 80여 년의 역사를 초대한다. 여기에는 “해방의 기쁨, 독립국가의 자부심,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 동족 간의 반목, 민주화를 위한 처절한 투쟁과 희생, 외세와 자주 반동과 전진, 자유와 평등, 공존과 평화 등이 기록돼 있다.

한편 책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사에서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처럼 독재와 불의를 꾸짖는 시대의 선지자였고 지금도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려의늬·3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백화

가와무라 겐키 지음·이소담 옮김

엄마가 치매가 걸리고 난 뒤 비로소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 '백화'. 잃어가는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진행되는 서사는 자못 흥미롭다. 차츰차츰 무너지는 엄마를 바라보며 이별을 예감하는 이는 뒤늦게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린다.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백화'의 원작 소설이 발간됐다. 책명은 동명 '백화'. 원작 저자인 가와무라 겐키는 영화 '늬대아이', '너의 이름은' 등의 히트작을 제작했다. 또한 저자는 데뷔작인 '세상에서 고향이 사라진다면'으로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영화 '백화'는 봉준호와 니콜 키드먼, 이외아 순지가 주연을 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소설 '백화'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와 엄마를 간병하며 잊었던 추억을 되살리는 아들의 이야기다. 엄마와 아들의 기억에는 왜곡된 부분도 있고 감동스러운 부분도 있다.

소설은 치매 증세가 심해지며 혼란스러워하는 엄마와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 아들을 통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기저에 흐르는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부모 특히 엄마의 존재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한 인간으로서 살아온 엄마'도 엄마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이다.

소설 속 아들도 마찬가지다. 태어나서 봐온 엄마 모습만 엄마의 전부로 착각했다. 엄마와의 추억조차 제 입맛대로 덧씌워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소설을 통해 저자는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을 일깨운다.

<소미디어·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본이 흔들린다

정영효 지음

“지금 일본은 청나라 말기를 닮았다” 일본 경제 최고 권위자 하라다 유타카 나고야상과대 비즈니스 스쿨 교수의 말이다. 일본은 거품 경제 이후 제로 금리, 디플레이션, 저출산과 고령화를 맞이하며 경제 침체가 장기화됐다. 엔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물가 인상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국면까지 거친 일본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책 '일본이 흔들린다'는 경제, 정책, 산업, 인구조로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살피며 국가 경쟁력 전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는 일본의 현 상황과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저자는 연수와 특파원 생활로 매일같이 일본의 변화에 대해 기록해 온 정영효 한국경제신문 기자다. 직접 목격한 일본의 현실, 일본 정부의 통계와 전문가 보고서, 언론 해설 기사를 토대로 깊이 있게 분석했다.

총 4개 파트에 걸쳐 책은 후진국의 반열에 오른 일본 소비시장의 변화와 일본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높은 규모의 코로나 예산에도 불구하고 가장 회복이 느린 이유 등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자정부를 구상했지만 아직까지도 팩스와 플로피 디스크로 업무를 보는 일본 관공서의 패착, 일본 대기업들의 붕괴, 일본의 인구문제까지 다룬다.

저자는 “모든 통계와 순위표 등은 일본을 깎아내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올바른 방향을 도출해내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은 산업구조가 비슷하고 5~10년을 주기로 같은 고민을 겪기도 한다. 일본의 선례를 착실히 연구해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경제신문·1만7500원>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